불광사 내홍 격화… 법적 다툼 불가피

대각회 중재안에도 '창건주 권한' 두고 대립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최근 창건주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불광사에 대해 상위재단인 대각회가 정상화대책위를 통한 원만 해결을 추진했지만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대각회도 대책위 무산 시 법적 해결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만큼 내홍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홍 스님은 7월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각회 정관에 따라 법적 권한을 재확인 받았다. 이 같은 뜻을 받들어 불광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사현정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 화합이 문제 해결의 제1원칙이지만 정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홍 스님은 문도회에 대해 "현재와 같이 우유부단하고 탐욕만을 고집한다면 누가 문도회를 믿고 따르겠는가"라며 "전법과 제2불광운동에 매진하겠다. 매서운 겨울을 겪고 있지만 정법에 대한 뜨거운 원력으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불광사 신도임원회의인 불광사 명등 일동은 같은 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불광법회 신도들은 정상화대책위로 책임을 미룬 대각회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 대책위 참석 거부와 함께 즉각적인 비대위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광법회 불사들의 보시금 모금을 중단하고, 지홍 스님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후속조치를 단행하겠다. 또 불광법회 감사로 종무행정과 회계 전반의 감사 요청과 불광법회 포교사를 중심으로 포교원장 사퇴운동, 조계종단 3원장 완전 퇴진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도들 "고발, 소송 등 불사"
지홍 스님 "창건주권한 확인"
정상화대책위는 사실상 무산
사회법 해석 따라 결론 날 듯

이 같은 입장 속에 개최 시기와 활동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각회 정상화대책위는 12일까지 지홍 스님 측과 불광문도회, 신도회 측에 참가여부를 묻는 통보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대각회 이사회(이사장 혜총)는 앞서 10일 목동 법안정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광덕 스님 사제인 흥교 스님을 위원장으로, 지홍 스님 측 1인과 문도회 측 1인, 신도회 측 1인 및 대각회 감사 월암 · 일광 스님을 위원으로 불광사 정상화대책위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

핵심 쟁점사항 2가지는

정상화대책위가 무산되면 불광사 사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에서 다툼이 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불광사 주지추천권을 갖는 창건주 권한 문제다. 대각회 이사회에서 광덕문도회와 신도회 측은 '창건주 승계의 당위성' 이란 배포자료를 통해 "1999년 2월 광덕 스님 입적 후 49재서 열린 문도회의서 지정 스님을 임기 10년으로 정하여 창건주 지위를 승계 받게 했다. 5년 후 지정 스님 사임 당시 2004년 2월 문도회의서 지홍 스님을 임기 10년으로 정해 창건주 지위를 승계 받게 했다. 2014년 지홍 스님 후임을 선출하려 했으나 지홍 스님의 비협조로 선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각회가 소속된 조계종의 사찰법 상에는 창건주 권한은 창건주에서 승계되고, 창건주 권한 승계 전 창건주 사망 시에 도제 및 사형사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로 승계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각회 이사회는 불광사 창건주 권한에 대해 "대각회 정관상 창건주 권한은 창건주에서 창건주로 이양된다. 정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지홍 스님의)창건주 권한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한 상태다.

또 다른 쟁점은 지홍 스님의 불광사 유치원 임금 수령에 대한 법적해석 여부다. 불광사 명등 소속 51명은 7월 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지홍 스님이 불광사가 운영하는 유치원 이사장 지위로 상근자로 등재, 매월 325~360만원의 급여를 차명계좌로 부정 수령했다고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3년 넘게 약 1억 3069만원을 횡령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홍 스님 측은 "차명계좌는 없었으며 급여를 받았지만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법적 절차를 제기한 만큼 법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질 것으로 더 이상 음해와 비방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설조 스님 찾아간 설정 스님… '입장 차 분명'

7월 10일, 단식 21일째 만나 5분가량 대화
시민연대-조계종 논평, 입장문 통해 공방

설조 스님의 단식 21일째인 7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단식장을 찾아가 설조 스님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6시 10분경 설정 스님은 호법부장 진우 스님 등과 함께 단식장에서 5분가량 설조 스님과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설조 스님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 "종단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자"고 말했으나 설조 스님은 설정 스님의 퇴진에 방점을 찍어 대화가 길어지지 못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88세 노스님이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한 21일째야 총무원장이 찾아왔다면 분명한 답을 갖고 왔어야 한다"며 "총무원장이 한두 명 바뀐다고 종단이 바뀌겠냐고 했다는 것은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종단에 도덕이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노스님의 간절한 호소를 희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또한 설정 스님에 대해 "자식문제가 발생한지 19년 동안 유전자 검사로 결백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자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면서 "설조 스님의 비원은 진짜 비구 승려가 종단의 공적 소임을 맡아야 한다는 것 단 한 가지다. 더 이상 시간을 끌거나 얼토당토 않는 변명이나 해명에 급급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의 이 같은 논평에 조계종도 즉각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대변인 일감 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설조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물러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사진 오른쪽)이 단식 21일째인 설조 스님을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진 못했다.

조계종은 "승가공동체 내부에서 불교적 방식을 통한 문제해결을 고민하고 제시할 때 비로소 설조 스님 단식이 대중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조 스님의 단식 또한 과거의 잘못된 문제해결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권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된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이어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를 받들어 구성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 활동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며 "종단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설조 스님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시어 하루속히 단식을 중단하고 종단 혁신을 위한 길에 함께할 수 있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6바라밀 깨달음 향한 보살의 실천 덕목

6바라밀(波羅蜜)은 대승불교의 보살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6가지 실천 덕목입니다.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반야(般若, 지혜) 바라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일러주신 열반에 이르는 길 8정도는 계정혜 삼학입니다. 대승불교의 6바라밀도 삼학의 구조인데, 계학에 이타적(利他的) 덕목인 보시와 인욕을 추가했습니다.

자기 완성을 위한 출가 중심의 8정도 수행에 대사회적인 보시와 인욕을 부각시켜 재가자를 포함한 보살의 이타적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살의 수행은 중생계에 회향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이 곧 중생을 교화하는 수행이고, 중생을 교화하는 수행이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이어야 합니다. 보살의 이러한 수행을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고 합니다.

상구보리에서 이룬 선득지(先得智, 근본지)가 실천으로 나타나 하화중생할 때 후득지(後得智)가 드러납니다. 후득지 없는 선득지는 아상만 키웁니다.

산승의 선지식이며 수행의 거울인 복지현장은 후득지 증득을 위한 더없는 도량입니다. 중생을 이익되고 복되게 하면서 자기도 이로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후득지 성취가 6바라밀 수행의 종착지입니다.

*보시바라밀: 자기 것을 조건없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무주상 자비행이며 깨달음에 이르는 첫걸음' 이라고 이 연재를 시작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자비심을 일으키는 수행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합니다.

지계바라밀: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인이 지켜야 할 기본 5계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가 있고,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의 구족계가 있습니다.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면 계를 지킨다는 상이 없습니다.

인욕바라밀: 비방하는 상대를 헤아리며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분노없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입니다. 칭찬에도 들뜨지 맙시다.

정진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을 쉼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면서 '방일하지 말라' 고 당부하셨습니다.


상구보리하화중생 그림 · 조향숙

8정도에 '보시 · 인욕' 추가
대승의 이타적 특징 부각
지혜바라밀은 대자대비

선정바라밀: 정진 바라밀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요함이며 삼매입니다.

반야바라밀: 청정심으로 보는 실상입니다. 지혜의 완성인 반야바라밀에서 자리이타가 나오고 대자대비가 나옵니다.

*지금 대승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불자들은 생활 속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보살이 됩시다. 6바라밀 수행은 보살행이며 중생복지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낸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 받아야 하는지 수보리의 질문에 자상하게 일러주십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할 때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나침반인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가르침에 따라 성불로 가는 보살의 길을 닦읍시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2018년 백중기간 5% 특별할인(8월25일까지)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회계 감사보고 결과
지급 여력 비율(100% 이상) ·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 업체 공개

BTN 불국토상조는
불자님들을 위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입니다



상담 및 가입문의 1577-7675

불교의 전통 그대로
- 입관시 스님의 시다림
- 제단에 불교식장엄번 설치
- 불경수의 제공
- 지장보살상 위패 제공

불교TV의 안전성으로
- 불교TV자회사 (주)불국토에서 운영
- 해약시 환급율에 따른 환불(만기 1년 후 100% 환급)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서울-2001 제68호)
- 선불식 할부금 예치기관(국민은행)

거품없는 가격으로
- 매월 3만3천원의 합리적 가격
- 물가 상승시에도 추가부담 없음
- 부부형 가입시 할인혜택
- 묘지/납골당 저렴하게 이용

전국어디서나 편리하게
- 전화 한통화로 임종에서 장지까지 원스톱서비스
- 전문장례지도사 24시간 대기
- 회원권 누구에게나 양도 가능(단 부부형 제외)
- 전국 어디에서도 서비스 가능(단 도서지역 제외)

BTN 불국토상조
● 당사는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 (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 고객 환급 의무액 10,286,288,045원, 상조 관련 자산 15,736,255,734원입니다. ● 대표이사 : 구본일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홈페이지 : ww.btnlife.co.kr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서울-2011-제68호